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 기탁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는 지난 3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써달라며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김완중 지사장은 "지역사회에서 사회환원 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부안군 학생들이 장학사업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애정을 갖고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지속적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기부에 감사 드린다"며 "부안군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부안지사는 올해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후 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추진 하고 있으며 가뭄 대비 안정적인 용수공급 수자원 확보를 위해 사산저수지 준설사업을 국비 9억 원을 투입해 시행하고 있다.

/부안=고병하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지면 : 2024-09-04 15면

<http://sjbnews.com/826329>